KPRC NEWS
www.replastic.or.kr

협회 재활용 공제사업 추진 결과 및 계획 보고

협회는 지난 3월 31일 2004년도 재활용 의무이행 결과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최종 보고하였다. 2003년 EPR 제도 시행 이후 협회에서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 재활용 인프라 구축 및 개선, 홍보사업, 조사 및 연구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2004년도 협회 재활용 실적은 재질에 따라 의무량을 최하 1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까지 초과 달성함은 물론 2003년 대비 총 재활용량도 2배정도 증가 하였다.

이러한 협회 재활용 공제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는 2005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협회 이미지 개선, 신뢰도 향상에 따라 공제회원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특히 2004년부터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의무가 실시되면서 2005년도 협회 공제회원사 및 재활용 회원사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에 발맞추어 협회에서는 필름류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2005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 협회는 2005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지난 1월 31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제출하였다.

구 분	재활용의무율	공제회원수	재활용업체수
단일용기 및 트레이	0.502	1,480개사	95개사
기타합성수지	0.368		34개사
PVC재질	0.480		3개사
PSP재질	0.249		21개사
계			153개사

[2004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 협회는 2004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3월 31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제출하였다.

의무대상 제품 · 포장재	출고량	재활용 의무율	재활용 의무량	재활용실적
기타단일재질	90,276,556	48.3%	43,622,633	95,283,912
기타복합재질	64,311,210	28.2%	18,109,495	36,688,170
PVC재질	2,478,147	47.3%	1,172,495	1,350,000
PSP재질	9,770,283	20.4%	1,991,794	2,206,468

제3기 정기총회 개최

협회(회장 이국노)는 지난 2월 25일 여의도 63빌딩 이벤트홀에서 이국노 회장을 비롯한 재적 대의원 175명중 1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4년도 사업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2005년도 재활용분담금 책정 및 납부절차(안) 승인의 건" "2005년도 일반회원 회비 책정 및 납부절차(안) 승인의 건"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또한 정관개정(안)의 승인에 따라 현행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이사의 수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개정되었으며, 임원 선임의 승인에 따라 협회의 신규 이사로 (주)농심의 유종석 상무이사가 선임되었으며,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이 이사에서 감사로 선임되었다. 나머지 이사에 대한 선임은 환경부에서 정관개정(안)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협회는 지난 1년간 협회 발전에 기여한 씨제이(주) 김영호 부장 등 15개 공제회원사 EPR 담당자, 그린환경(주) 등 11개 일반회원사, 대전광역시 등 9개 유관기관 등 총 35곳을 선정하여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단일재질 MR 잔재물 등 처리 공동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일재질 재활용 회원업체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잔재물이나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적정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회와 단일재질 재활용회원사가 공동으로 이들 오염물질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척공정 중 발생되는 플라스틱 잔재물은 지금까지 매립이나 소각, 시멘트 부연료 등으로 처리되고 폐수, 슬러지는 대부분 전문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이들 처리가 점차 엄격해지거나 기피되어지고 매년 막대한 처리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잔재물과 같은 주요 재활용원료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협회와 회원사는 공동으로 동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다.

이에 금년 1월 7일 종합공장설립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3월 10일 동 사업의 본격적인 실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향후, 협회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동종 회원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계획을 보완하고 심도있는 사업성 검토와 조사를 통해 최적의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05년도 재활용비용 산정지수 고시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재활용비용 산정지수를 고시(2005-52호, 2005. 4. 11)하였다. 고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5년도 재활용비용 산정지수

2005년도의 재활용비용 산정지수는 1.0475로 한다.

■ 관련조항: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별표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 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005년도 부과금 산정기준

품 목	종 별 및 재 질	재활용 기준비용	부과금 산정기준
1. 음식료품류, 농·축·수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류,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라.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1) EPS 단일재질 포장재	317원/kg	332원/kg
	(2) 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	981원/kg	1,027원/kg
	(3) PET병 포장재		
	가) 무색 PET병 단일재질 포장재	178원/kg	186원/kg
	나) 유색 PET병 단일재질 포장재	235원/kg	246원/kg
	다) PET병 복합재질 포장재	360원/kg	377원/kg
	(4) 그 밖의 단일재질 포장재	327원/kg	342원/kg
	(5) 그 밖의 복합재질 포장재	467원/kg	489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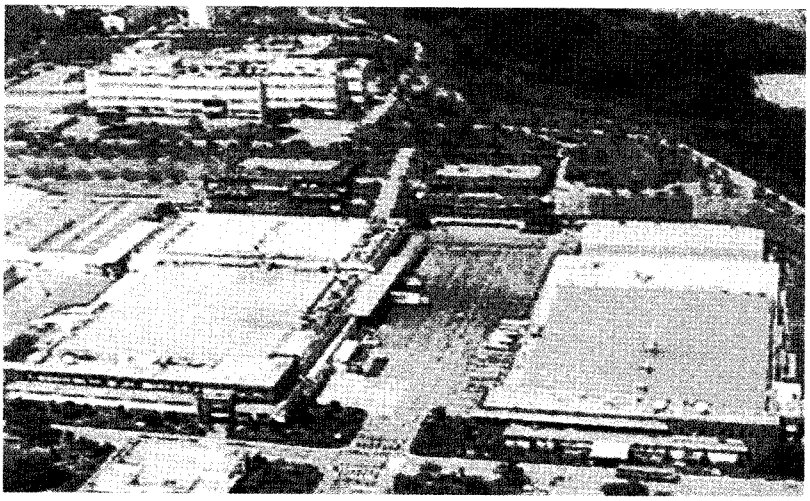
제1차 등산동호회 모임 개최

협회는 공제회원사 실무자들과 4월 9일 청계산에서 제1차 동호회 모임을 개최하였다.

지난 2월 15일 개최된 공제회원 소위원회에서 협회와 공제회원 실무자간의 업무협조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산 등 동호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진된 이날 행사에는 씨제이(주), 롯데칠성음료(주) 등 총 16명이 참가하였다.

협회는 등산동호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공제회원 실무자들과의 상호 이해증진 및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친화적 경영의 선도자, 씨제이(주)



CJ(주) 이천공장 전경

CJ주식회사는 1953년 창업한 이래 식품, Bio제품, 생활용품 등 제조업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미래형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고객의 건강, 즐거움, 편리를 추구한다는 기업 이념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CJ의 시작은 1953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백설표 브랜드'의 설탕,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면서부터 였으며, 그 후 백설식용유, 다시다, 백설햄, 백설냉동, 햇반 등 가공식품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국내 최대의 식품 회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조미료 사업을 하면서 축적된 첨단 발효, 정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약, 바이오 부문에 진출하여 명실상부한 제약,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1993년 CJ는 삼성그룹과 분리한 후, 기존 식품 및 제약, 바이오 부분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사업 부분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베이커리, 단체급식, 외식, 식자재 사업 등으로 경쟁력을 쌓아 갔다. 뿐만 아니라 드림웍스와의 합작을 계기로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진출하여 미래가치를 극대화해 나가는 부분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제 CJ주식회사는 식품과 바이오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에 오른 엔터테인먼트 및 외식, 단체급식, Drug Store 부문은 각각 CJ엔터테인먼트, CJ푸드빌, CJ푸드시스템, CJ올리브영 등의 계열사로 분사하여 더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건강, 즐거움, 편리를 창조하는 제일 좋은 생활문화기업은 CJ의 비전이다. 여기서의 건강은 개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적 건강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건강한 사회와 그 구성원, 건전한 기업은 각각 떨어져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민한 때도 일찍이 없었다. 기상이변과 자원고갈,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지구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더한층 강조되고 있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는 환경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CJ주식회사는 "고객에게 신뢰 받는 CJ를 만들기 위한 World Class의 안전, 환경 전문성을 갖춘 혁신의 선도자"라는 환경/안전비전을 바탕으로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개선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 생산 등 전 분야에서 환경친화적 경영을 전개하고자 노력한 결과 대형사업장 5개 사업장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러한 환경경영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선진 환경기법을 도입 · 적용하여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환경경쟁력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환경성과 지표개발 및 환경성과 계량화 사업에 공동 참여하여 선진 환경경영 기법 개발 및 도입을 적극추진하고 확산적용 중에 있다.

특히 1999년 12월에는 그룹의 성장과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펼치기 위해 조직 내에 사회공헌팀을 신설 본격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중 '이천 CJ사랑 나눔터'나 '용두 희망 만들기 열린학교' 등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정부, 기업, 주민, 복지관등 다양한 기관이 전략적 파트너쉽 모델을 만들어 활용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세계 유수한 다국적 선진기업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형태로, 새로운 사회복지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1990년 6월 5일 국내 기업 최초로 '1사 1산하 가꾸기' 환경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후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각 지방 사업장별로 해당지역의 산이나 하천을 선정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1사 1산하 가꾸기' 운동

을 실시한 지 10년째가 되는 지난 2000년 4월에는 관악산에서 행사 10주년기념식을 갖고 묘목 및 야생화 심기, 퇴비주기, 등산로 정비 자연정화 활동등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에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 백서인 '사랑나눔'을 발간하는 등 임직원 모두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재인식을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 실시, 긴급 재난구호 활동 추진, 푸드뱅크(Food Bank) 운영, 사랑의 1구좌운동, CGV 장애우 영화관람 행사, 결식아동 영화 시사회, 벽지 어린이 뚜레쥬르 체험, 임직원 헌혈행사 등의 사회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동, 객석 10% 나눔 운동, 해란강 문학상, 전국조선족 중학생글짓기 콩쿠르 지원 등의 문화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CJ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하여 사회공헌을 함에 있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회사 구성원 스스로가 그 가치와 의의를 더욱 공유하면서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협회 홍보조사팀〉

CJ CI 소개

- 화창한 봄날 만개하는 꽃처럼 세계시장과 고객을 향해 새롭게 피어나는 CJ의 모습을 담고 있어 이를 'Blossoming CJ'로 명명하였다. 새로운 심볼은 크게 CJ라는 서체와 각각 세가지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는 세 형상으로 나뉘어 진다. 먼저 왼쪽의 CJ서체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타 기업들의 서체와는 달리 가늘고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경쾌한 느낌을 준다. 이는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보다 부드럽고 세련된, 그래서 고객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

- 다음으로 서체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세 가지 색상의 형상은 원이나 타원 등의 특정한 형태로 규정하기 힘든 모습이며, 이것은 그 자체로 Organic, 즉 자연의 형태로서 매우 역동적이다. 피어나는 꽃잎이 될 수도 있고, 움직이는 생명체가 될 수도 있으며, 더 작게는 세포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

- 이것은 CJ가 자연을 닮은 자연 친화적인 그룹이며, 항상 역동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고, 고객에게 언제나 새롭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기업이라는 것을 표현한다.

CJ

□ 건강 □ 즐거움 □ 편리

Blossoming CJ는 CJ브랜드가 고객에게드리는 건강, 즐거움, 편리의 가치를 전달하는 한편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조화속에서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CJ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CJ Red, CJ Yellow, CJ Blue의 색상은 CJ가 소비자의 생활속에 담고 싶어 하는 건강, 즐거움, 편리라는 세가지 가치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CJ Red와 CJ Blue는 기존 심볼의 칼라를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기존 사업의 발전하는 모습을 의미하며, CJ Yellow는 새롭게 커나가는 신사업군을 의미합니다.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의 재활용 홍보

협회는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국제화장품미용박람회에 참가하였다.

대한화장품협회 주최로 4만 여명의 화장품업계 관계자 및 일반 시민들이 참가한 이번 행사서 우리 협회는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를 재활용하여 만든 재활용제품을 전시/홍보하였고,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참관객들에게 배포하였다.

2005년도 플라스틱재활용기반구축자금 융자 실시

협회는 EPR 대상 플라스틱을 수집 · 선별하거나 고형연료화, 유화, 목재화 등 에너지회수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2차에 걸쳐 융자가 집행되지 않은 잔액에 대하여 추가로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플라스틱재활용기반구축자금 융자는 5억9천만원 규모로 3월 22일 안내공문 발송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며, 신청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다. 협회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심의 · 평가위원회에서 융자대상 업체를 5월 15일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1.5%,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중소기업은행을 통하여 집행될 예정이다.

"플라스틱재활용기반구축자금 융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회가 공제업무의 수행과 더불어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 ·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총 25억 규모이며, 1차로 14억천만원이 2차로 5억원 등 총 19억천만원이 융자되었다.

2005년도 재활용업체 기술개발지원 실시

협회는 재활용 회원사들의 생산 공정 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기술력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업체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2005년도 재활용기술지도사업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협회에서는 재활용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코리아리싸이클시스템, 동명알피에프(주), (주)에너지, 동명산업(주), (주)푸름리싸이클의 5개사가 기술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이들 5개사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실시하는 재활용 기술지도사업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었다. 동 사업의 신청 업체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20%이고, 이 업체 부담금 중 협회에서 15%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각 업체별 기술지도사업은 5월경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재활용 회원사의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 공정 개선 등이 기대되어 진다.

현재 동명알피에프(주) 등 2개사의 기술지도 신청과제 및 기술지도자는 아래와 같다.

공제회원 소위원회 개최

협회는 2월 15일 중소기업협종조합중앙회 소회의실에서 공제회원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총 위원 148개사 중 80개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선출이 있었으며 위원장에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 부위원장에 롯데칠성음료(주)와 한국피앤지판매(유)가 선출되었다. 또한 소위원회 위원 148개사를 정기총회 대의원사로 선출하였다. 한편 협회와 회원사간에 업무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실무자 동호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재활용 분야별 소위원회 개최

협회에서는 1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에 걸쳐 각 분야별 재활용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2005년도 재활용 사업 방향을 제시하였다.

금번 소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대의원 선출이 이루어졌으며, 연회비 조정, 2005년도 협회 재활용 관리 방안 등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특히, 재활용 회원업체의 공익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재활용 회원사의 연회비를 기존 1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이와 함께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결, 정보 및 기술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각 분야별 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위원회 분 야	위원장 · 부위원장 · 대의원 선출 결과			기타 회의 결과
	구 분	회원사명	대표자명	
단일용기재활용	위원장	용산화학	김승수	• 2005년도 물량배정기준 : EPR 해당 품목 및 재활용 방법 · 기준에 부합하는 매출만 인정 • 재활용 회원 관리방안 : 이중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3년간 공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당해연도 위 · 수탁 계약 불이행시 1년간 공제사업 참여를 제한함 • 재활용관리대장 변경 : 별지19호 서식
	부위원장	(주)삼원자원	김복수	
	대의원	독산플라스틱	채영복	
	대의원	삼진수지	김승길	
	대의원	풍산화성	박종현	
	대의원	흥진수지	김택영	
	대의원	태경자원	이태화	
	대의원	대우케미칼	정봉기	
	대의원	삼정산업	박영선	
복합물질재활용	위원장	(주)그린프라텍	신임식	• 재활용 위 · 수탁 계약물량 : 혼입률 100%를 기준으로 산정 • 재활용 실적 확인 강화 : 각 재활용 방법별 실적확인 서류 강화 등 • 재활용관리대장 변경 : 별지19호 서식
	부위원장	(주)지아이디	강석우	
복합연료재활용	위원장	(주)에너지	장광익	
	부위원장	삼호환경기술(주)	이용희	
PVC & PSP 재활용	위원장	인천산업재생공사	홍영복	• 재활용 회원 관리방안 : 이중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자격상실, 재활용을 재 위탁하였을 경우 3년간 공제사업 참여 제한 • 재활용관리대장 변경 : 별지19호 서식
	부위원장	복산상사	황선복	
	대의원	그린환경(주)	김진만	
선별센터	위원장	효성자원	조종운	• 대의원으로 (주)알에스피, 광산기업(주), (주)대한산업, 사람과환경의 5개사 선출
	부위원장	(주)태광수지	김진춘	

2005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2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5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 의장인 협회 이국노 회장을 비롯해 총 15인의 이사 중 12인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규회원 가입 승인의 건, 2004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안) 심의의 건,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의 건, 정관 개정(안) 심의의 건, 회계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의안 심의가 있었다.

이중 신규회원 가입 승인의 건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2005년 2월 16일까지 협회에 가입신청을 한 공제회원 198개사 및 일반회원 15개사 등 총 213개사에 대한 회원가입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2004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안) 심의의 건과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정관 개정(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상정안 중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되, 제12조 제2항 "제1항의 가입신청이 있을 때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가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가입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 통과되었다.

2005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3월 17일 협회 회의실에서 2005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협회 이국노 회장을 비롯해 총 13인의 이사가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운영자금 조달의 건에 대한 의안 심의가 있었다.

오오무타시 리싸이클프라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파쇄 · 선별하여 자원화하는 시설로서 생산규모는 66톤/일이며, RDF센터는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 건조, 선별, 압축성형하여 RDF로 생산하는 시설로서 225톤/일의 생산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오오무타리싸이클발전(주)는 생산된 RDF를 원료로 하여 발전하는 시설로서 315톤/일의 RDF를 투입하여 20,600kw/일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현 재활용시스템 견학 실시

일본 방문단들이 오오무타시 RDF 발전소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협회는 일본의 선진 재활용제도 및 재활용시설의 견학을 위해 2004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자체 재활용 담당자들과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및 오오무타시 에코타운을 방문하였다.

일본 방문단은 협회 김종석 부회장을 단장으로 부산시, 김해시, 제주시 등 14개 지자체에서 총 22명이 참가하였으며,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의 에코타운을 방문하여 에코노베이트響 과 (주)에코우드를 견학하였으며, 오오무타시 에코타운을 방문하여 리싸이클프라자, RDF 센터 및 RDF 발전소 등을 견학하였다.

이번 방문은 일본의 생활계 플라스틱) 재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의 설치 · 운영 현황을 견학하고, 지자체 및 관련분야의 역할분담 등의 주요 내용을 제도 운영에 도입하여 현재 실시중인 EPR 공제사업의 효율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에코노베이트響은 병원폐기물 중 재생가능한 플라스틱을 재생원료(플레이크나 펠렛)로 가공하여 병원폐기물 수집운반용기로 재생하는 업체로서 생산능력은 25톤/일 규모이며, (주)에코우드는 폐목재와 폐플라스틱을 100% 주원료로하여 재생건축자재 제조 · 판매하는 업체로서 연간 생산능력은 5,000톤 규모이며 파고라, 벤치, 펜스, 문, 툇마루 등을 생산하고 있다.

오오무타시 리싸이클프라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파쇄 · 선별하여 자원화하는 시설로서 생산규모는 66톤/일이며, RDF센터는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 건조, 선별, 압축성형하여 RDF로 생산하는 시설로서 225톤/일의 생산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오오무타리싸이클발전(주)는 생산된 RDF를 원료로 하여 발전하는 시설로서 315톤/일의 RDF를 투입하여 20,600kw/일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동향 및 전망

■ 국내시장개황 : 물량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

유가상승과 더불어 비수기를 벗어나면서 재활용 중간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중소제조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재생원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물량부족이 야기되어 강보합세 유지

- 국제유가와 환율, 수집물량 감소로 인한 업체간 물량 확보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가격상승 가능성
- 최근 재생원료의 중국 수출량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일부지역에서는 스티로폼의 수집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속적인 내수침체로 인한 원료공급 부족과 낮은 재고로 EPS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압축 PET 재고물량은 부족하나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거래가격 하락

• 지역별 폐플라스틱(재생 Flake) 가격현황 (단위 : 원/kg)

구 분		수도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PE	전월	320	310	360	360	325	330	340	340
	3월	350	310	400	352	375	330	340	350
	증감	30	-	40	8↑	50	-	-	10
PP	전월	320	310	350	330	320	350	340	345
	3월	335	310	380	325	355	350	340	350
	증감	15	-	30	5↑	35	-	-	5
PS	전월	310	260	390	340	250	250	350	265
	3월	350	260	450	350	300	250	380	265
	증감	40	-	60	10	50	-	30	-

※ 자료조사기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가격 기준)
- 미세척 flake (파쇄상태), 중간급 품질

• 폐플라스틱(재생 Flake) 가격동향(수도권 지역) (단위 : 원/kg)

구 분 (분기)	'00				'01				'02			
	1	2	3	4	1	2	3	4	1	2	3	4
PE	280	280	280	280	280	267	257	243	230	230	230	230
PP	250	253	255	257	257	237	230	218	200	200	210	220
PS	160	160	170	170	227	220	147	137	130	137	147	150

구 분 (분기)	'03				'04				'05
	1	2	3	4	1	2	3	4	1
PE	250	260	255	235	257	280	292	303	330
PP	233	242	237	226	213	260	283	303	325
PS	163	150	163	167	183	280	287	303	323

※ 분기별 평균가격

• 지역별 폐플라스틱(재생 Pellet) 가격현황 (단위 : 원/kg)

구 분		수도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PE	전월	560	550	550	600	548	570	600	540
	3월	595	580	550	615	565	570	600	550
	증감	35	30	-	15	17	-	-	10
PP	전월	560	500	550	550	512	550	600	535
	3월	585	550	550	610	550	550	600	535
	증감	25	50	-	60	38	-	-	-
PS	전월	550	-	620	-	510	520	700	530
	3월	550	-	650	-	540	520	750	535
	증감	-	-	30	-	30	-	50	5

※ 자료조사기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가격 기준)
- 재생 pellet(세척후 용융 · 압출상태), 중간급 품질

• 폐플라스틱(재생 Pellet) 가격동향(수도권 지역) (단위 : 원/kg)

구 분 (분기)	'00				'01				'02			
	1	2	3	4	1	2	3	4	1	2	3	4
PE	540	547	543	530	493	493	410	438	450	450	457	460
PP	450	450	470	483	470	450	387	410	420	420	420	420
PS	640	650	650	630	583	517	350	392	385	402	430	430

구 분 (분기)	'03				'04				'05
	1	2	3	4	1	2	3	4	1
PE	460	457	459	458	500	517	537	553	572
PP	420	420	420	433	485	510	540	550	568
PS	430	423	428	443	493	538	543	553	550

※ 분기별 평균가격

• 지역별 발포스티렌(EPS) 가격현황 (단위 : 원/kg)

구 분		수도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잉고트	전월	430	300	375	470	435	300	500	530
	3월	450	300	375	500	515	300	500	530
	증감	20	-	40	30	80	-	-	10

※ 자료조사기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가격 기준)
- 용융물 상태, 중간급 품질

• 발포스티렌(EPS) Ingot 가격동향(수도권 지역) (단위 : 원/kg)

구분(월)	'04.1	2	3	4	5	6	7	8	9	10	11	12	'05.1	2	3
PE	340	360	370	400	420	400	400	400	420	430	430	430	430	430	450

※ 분기별 평균가격

• 지역별 압축 (PET) 가격현황 (단위 : 원/kg)

구 분		수도권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압출 PET	전월	440	400	320	400	450	400	420	380
	3월	395	400	320	410	450	400	420	380
	증감	845↑	-	-	10	-	-	-	-

※ 자료조사기준 (chip제조업체 구입가격 기준)
- 선별후 압축한 상태, 중간급 품질

• 압축 (PET) 가격동향(수도권 지역) (단위 : 원/kg)

구 분 (분기)	'00				'01				'02			
	1	2	3	4	1	2	3	4	1	2	3	4
PET	190	217	250	273	287	283	230	183	157	200	200	207

구 분 (분기)	'03				'04				'05
	1	2	3	4	1	2	3	4	1
PET	227	230	273	313	350	373	413	447	428

※ 분기별 평균가격

2005년도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제도 운영방안 개선

환경부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융자제도의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고객편의를 위한 초과승인제도 도입 및 융자대상 확대 등의 새로운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융자금의 '초과승인제도'는 예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일괄하여 승인하고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등 채권보전 절차를 완료하는 업체부터 우선하여 융자금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서,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그 동안 융자신청액이 예산액의 4배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융자승인 후 금융기관의 담보설정 및 기성에 따른 자금지출 등으로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자금을 조기집행토록 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의 융자지원대상에 분해성합성수지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 및 1회용품을 재활용이 가능한 대체용품으로 생산하는 자 등 친환경적 산업까지를 융자대상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 10개 기관의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그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동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되었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융자제도는 1994년에 시작하여 지난해까지 총 4,885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60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최근 3년간 총 6,488억원이 융자신청 되는 등 수요가 급증하여 금년에는 융자규모를 70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융자지원제도를 보다 고객중심으로 개선·운영하고자 융자심사·승인에 따른 결과를 휴대폰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융자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등 고객중심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융자규모 및 지원대상자

지원분야	융자규모	융자지원 대상자	지원용도
시설자금	450억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로서 동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또는 사업자 단체	- 재활용을 위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 설치비 및 건축비
기술개발 자금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의거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재활용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 및 시제품 제작용 기계장치 및 기자재 구입비, 소요인건비, 제경비
폐기물 감량화 시설자금	50억원	- 폐기물관리법제2조8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감량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 - 환경부 고시 제2003-64호 규정의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공정개선 및 재이용에 필요한 장비·장치·설비 등의 제작·구입설치비 및 공장건축비
경영안정 자금	150억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한 재활용사업자	재활용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 (원료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 연료비, 운송비, 시설정기검사 수수료에 한함)
유통판매 지원자금	50억원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리필등 재사용제품을 포함한다)로서 일반제조상품을 금액기준으로 30%이내 취급하는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	제품 유통·판매업에 따른 사업장 임대보증금 및 실내장식비(신규분에 한한다), 매장매입비, 건축비

• 융자조건

지원분야	대출금리	대출기간	지원한도액 및 비율	상환방법
시설자금	연3.28% (변동금리)	3년거치 7년상환 (10년이내)	• 50억원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 마다 균등 분할 상환
기술개발 자금			• 4억원	
폐기물감량화 시설자금			• 시설 : 5억원 • 공장건축비 : 3억원	
경영안정 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이내)	• 10억원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이내,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원에 의한 매출액 이내 - 창업 사업자의 경우 시설자금 융자승인액의 30% 이내	
유통판매 지원자금			• 2억원	

*보령제약 김상린 부사장, 사장 승진

보령제약은 김상린 대표이사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발령하였다. 김 사장은 지난해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매출 1천679억원과 순이익 86억원을 달성하는 등 내실 있는 경영을 펼친 것이 높이 평가돼 승진한 것으로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다.

*(주)기린 대표이사에 이용수 이사 선임

(주)기린은 지난 3월 18일 주주총회를 통해 새롭게 선임된 이용수(李容壽, 사진)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 3월 22일 취임식을 갖고 제2의 기린태동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신임 이사장은 3월 22일 ㈜기린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그 동안의 부진을 딛고 일어서는 기린에 힘있는 재도약을 위한 새 출발을 진두지휘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그 동안 위축되어 있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사장에 고계추씨 선임

제주도지방공사는 고계추씨를 신임 사장에 선임하였다.

*롯데제약(주) 대표이사에 조철우씨 선임

롯데제약㈜는 새 대표이사에 조철우씨를 선임하였다.

*경남제약(주) 신임 대표이사에 서승삼씨 선임

경남제약은 9일, 양인호(梁仁鎬) 경남제약 대표이사 사장을 부회장으로,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서승삼(徐承三) ㈜녹십자 부사장을 선임했다.

신임 서승삼 대표이사는 1983년 녹십자에 입사해 ㈜녹십자 전무이사를 거쳐 2002년 1월부터 ㈜녹십자 부사장으로 재임해왔다.

*한국크로락스(주), 헨켈홈케어코리아(유)로 회사명 변경

독일계 다국적기업인 헨켈(Henkel)이 지난해 인수한 한국크로락스(주)는 2월 24일 헨켈홈케어코리아(유)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생활용품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주)에뛰드, 사무실 이전

(주)에뛰드는 사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제센터빌딩으로 이전하였다. 주소 및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91 국제센터빌딩 6층**

◎ **TEL : 2186-0065 FAX : 2186-0070**

*(주)LG유통, (주)GS리테일로 회사명 변경

GS그룹 계열사인 LG유통은 4월 2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를 (주)GS리테일(GS Retail)로 변경하였다. 또한 편의점 GS25, GS수퍼, GS마트, GS스퀘어 등 사업부문별 BI(브랜드이미지통일)는 이달 중순까지 새로 마련, 직영 점포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GS